

연극이 있다

푸른연극마을 '잇다 페스티벌'
22일~11월 30일, 시어터연바람
박정자 모노드라마 등 16편 공연
낭독극 열전·식사권 증정 이벤트도

전국 극단이 한 데 모여 소극장 축제를 펼친다. 연극 축제 '연극 있다. 잇다 페스티벌'이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구 동명동 소극장 시어터연바람에서 펼쳐진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소극장 연극을 오래도록 이어나가고자 기획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축제는 '2인극 페스티벌 배우열전', '시민연극 페스티벌 낭독극열전', '오색빛깔, 오색마당 연출가전'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2인극 페스티벌 배우열전' (22일 오후 4시·23~25일 오후 7시 30분)은 푸른연극마을 단원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2인극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안톤 체츠크의 동명의 단편 소설을 연극화한 '드라마', 로맹 가리 원작의 '어떤 휴머니스트', 조송희가 작·연출한 '커피 스토리'를 22~23일 공연한다. 로맹 가리 원

작의 '지상의 주민들', 이당금 작 최창우 연출의 '신인류의 동굴', 최창우가 연출한 '약속'은 24~25일 만나볼 수 있다. 전편 1만원. '오색마당 오색열전'은 전국 5개 극단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연극 무대다. 첫 무대는 배우박정자가 선보이는 '명불허전 박정자의 연극 talk talk' (10월 25~26일)다. 이 작품은 '대머리 여가수' 등 14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박정자가 연극계에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는 모노드라마다. '자살'을 소재로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풀어낸 연극 '빨' (11월 1~2일)을 극단 '시나위' (부산)가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되며 노희경 작 '엄마의 치자꽃' (11월 8~9일)도 극단 '늘봄' (청주)의 무대로 선보인다. 12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을 못 잊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엄마를 두 딸은 낙담한 여자라며 비난하나, 그녀의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이밖에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고백:얼굴 뒤의 얼굴' (22~23일), 푸른연극마을의 '옥주' (11월 22~30일) 등 광주 극단의 작품도 무대에 오른다. 전편 2만원. '시민연극 페스티벌 낭독극열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린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진건

의 '운수좋은 날' (10월 29일), 알베르 카뮈의 '정의의 사람들' (10월 30일),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11월 5일),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1월 6일), 임철우의 '사평역' (11월 12일)을 무대에 올린다. 무료 공연. 한편 모든 공연을 티켓 하나로 즐길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시어터연바람 블로그를 통해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동명동 주변의 음식점에서 커피와 빵을 나눠주는 행사와 함께 각종 굿즈, 꽃바구니, 식사권 등을 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뮌헨에 울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

25일,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광주시향 김대성 곡 '민주' 연주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 뮌헨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25일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과 '광주시향교향악단' 수석단원 겸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또한 마리스 안손스를 사사했으며 뮌헨필하모니, 베를린필하모니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를 맡아 수차례 공연을 했다. 이번 음악회는 2018년 제작한 창작관현악곡의 제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Democracy)', 윤이상 작곡 'Collidesorones',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로망스' 등 총 4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민주(Democracy)'는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위촉 창작한 곡이다. 김대성 작곡가는 "김남주 시인의 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은'을 비롯해 망월동에서 본 모비문 '민주주의의 신세벽으로 부활하여라'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번 연주회의 지휘봉을 잡은 요셉 바스티안은 2004년~2017년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수석단원 겸 부지휘자를 역임했다. 또한 마리스 안손스를 사사했으며 뮌헨필하모니, 베를린필하모니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를 맡아 수차례 공연을 했다. 이번 연주회는 2018년 제작한 창작관현악곡의 제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Democracy)', 윤이상 작곡 'Collidesorones',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로망스' 등 총 4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민주(Democracy)'는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위촉 창작한 곡이다. 김대성 작곡가는 "김남주 시인의 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은'을 비롯해 망월동에서 본 모비문 '민주주의의 신세벽으로 부활하여라'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성

관객을 잇다



박정자



푸른연극마을의 연극 '옥주' 공연 장면.

잉어와 어우러진 '연잎 이야기'

도예가 김광길 초대전, 10월10일까지 화엄사 정보박물관



'기울의 울림'

물방울이 맺힌 푸른 연잎이 떠 있고 잉어가 노니는 연지(蓮池)의 풍경이 평화롭다. 불에 구워 파스텔톤의 색감을 입힌 작품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면'은 마치 회화 작품을 보는 것처럼 색다른 느낌을 준다. 도예가 김광길 작가 초대전이 오는 10월10일까지 구례 화엄사 정보박물관 보제루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화엄사에서 열리는 영성음악축제 '2019 화엄 음악제' 특별전으로 기획됐다. '연잎 이야기'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연지의 울림', '산사의 아침', '바람이 연잎 접다' 등 약 20점의 도예 작품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에서 알 수 있듯 김 작가는 '연잎'

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나의 테마만으로 작업을 하는 데라 오하려 더 다양한 재료적 실험 등을 하게 되고 독창성 있는 작품들을 구현해낸다. 연잎과 잉어의 다채로운 컬러와 무광이 어우러져 따뜻함과 차분함을 전해주는 것도 이번 작품의 특징이다. 조선태를 졸업하고 전북대 디자인제조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 작가는 남원국제도자 예술연구센터 이사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작가 및 광주 공예비엔날레 아트 페어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23일 영화간판쟁이 박태규

(재)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행사가 오는 23일 오후 6시 박태규(사진) 작가 작업실에서 열린다. 이 기획은 지역 밀착형 정기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회화 작가이자 시대의 마지막 '영화 간판쟁이'로 불리는 박 작가는 기억해야만 하는 시대의 이야기들을 회화를 통해 표현해낸다. 또 인권과 환경, 생태문제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작업해 오고 있다. 박 작가는 전국 순회전인 '민족해방운동사 길개그림' (1989)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광주 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부산민주공원, 울산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 2000년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을 결성, 도시생태환경운동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과 자운영미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사랑의 메타포 Metaphor for love'

정중관 개인전, 29일까지 양림미술관

정중관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꾸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선 사람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정 작가는 그런 역설적 시각을 통해 시대와 사회상을 읽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위로한다. 그의 작품이 발연하는 내용들은 사회 비판적이지만 해학과 자유로움이 함께 해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정중관 작가 개인전이 오는 29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사랑의 메타포 Metaphor for lov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0호 4점 등 대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연작 형태로 출품한 '공해 탈출'은 현대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공해로 찌든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해 냈다.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인생 한바탕 꿈', '비블인간' 등 그의 화풍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조금 변형된 형태로 묘사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에서는 고향인 영암 월출산의 풍광을 추상적 느낌을 가미해 묘사한 '신령 월출산' 등의 작품과 최근 고대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된 후 '허황옥 루트'를 읽고 상상으로 그려낸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다섯살



'공해탈출'

손녀딸의 상상력에 이야기를 더한 '다섯 살의 사회학' 등은 유쾌한 작품이다. 정 작가는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26회, 단체전 300여 회 등 국내·외전에 참여했다. 현재 미술과비평공모선정작가로 한국미술협회, 황도회, 신학회, 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전에 이어 오는 10월2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도시협,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27일부터 강좌

문화도시 광주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역민의 삶과 연계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오후 3시) 5·18기록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성소수자 등을 화두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탐구하는 방식으로 기획됐으며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구체적인 강의는 1강 '청년과 문화도시 광주' (27일·문정은 광주청년센터 the 쇼 센터장), 2강 '장애인과 문

화도시 광주' (10월2일·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3강 '오월여성과 문화도시 광주' (4일·정현애 오월여성연구소 이사장), 4강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11일·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5강 '성소수자와 문화도시 광주' (16일·백희정 광주나비 대표) 등이 진행된다. 10월 18에는 고희의 수록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25일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 2만원(교재비, 답사비 포함).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